

정치 현실에 대한 두 시인의 반응*

- 임화와 김수영의 경우 -

이 송 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임화의 경우
- III. 김수영의 경우
- IV. 맺음말

<Abstract>

Two Poets' Response to the Realities of Politics

Lee, Soong Won

Focusing on Im Hwa's poetry written during the Japanese reign and that of Kim Soo Young after the Liberation, this study aimed to look into the incarnation of the political realities as experienced by the poets and the nature of their pursuits as reflected in the description of political issues.

The reflections in both Im Hwa's and Kim Soo Young's poetry show a common drift of reducing poetry to a form of meager description of reality and strife, a means of working themselves into full blown anger, a slogan, or an exclamation. A good example is the series of Im Hwa's short epic poetry written from 1929 until 1930 and Kim Soo Young's works produced between the April 19 Citizen's Revolution and the May 16 Military Coup

* 이 논문은 2003년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지원비에 의해 연구된 것임.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d'état. The stronger the force of political repression becomes to drive one's ego deeper inside, the closer self-introspection comes around and the more the feeble ego searches for ways to cope with repressive realities. Genuine poetry is born from such pursuit and agony. Although an outright articulation against reality or a unilateral criticism on political issues may serve as a subject matter for poetry, it still falls far short of finding its true place in the core of poetry. Retreating to his inner self, Im Hwa was able to produce the poem "Sill Jae," which truly reveals his own honest features. On the other hand, Kim Soo Young composed a poem of a higher dimension, "A Variation of Love," which finds love in the course of daily life by setting aside the reality and searching for petit bourgeois ways to struggle. Such exposition applies to populism poetry during the 1980s.

I. 머리말

시와 정치의 관계는 소설과 정치의 관계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양상을 드러낸다. 소설은 인간 현실의 전형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리얼리즘적 창작 방법이 하나의 역사적 전통으로 수립되어 있지만 시에서 리얼리즘을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못된다. 한국시의 리얼리즘적 경향을 고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시와 현실의 관계가 소설과 현실의 관계와는 다른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우라(C. M. Bowra)의 말대로 시가 정치와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 자체를 일반인들은 수용하지 않으려 하며, 정치의 개념 영역을 사회현상 전반을 지칭하는 쪽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어색한 관계를 피하기 어렵다.¹⁾ 시가 정치현실의 영향을 받으면 한편의 시로서 실패하거나 시의 순정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920년대 경향적 목적의식을 드러낸 카프 시의 경직성과 단편성을 실패의 예로 들기도 한다.

1) C. M. Bowra, *Poetry an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 1.

유럽 역사에서 문학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표명한 최초의 인물은 플라톤이다. 그는 이데아의 세계를 모방한 현상계는 본질이 아닌 가상이며 그 가상의 세계를 다시 모방한 문학은 본질의 세계에서 더 멀리 떨어진 거짓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뿐 아니라 문학은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여 도덕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에 의해 훌륭한 통치를 원하는 나라에서는 문학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확고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엘리트 정치를 꿈꾸었던 플라톤에게는 문학의 허구성과 선정성이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해 칼 포퍼는 유토피아적 환상에 바탕을 둔 전체주의적 사고라고 비판을 가하였다.²⁾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적 정치체제가 지배했을 때 문학인은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소외되고 탄압을 받았는데, 그것은 전체주의 정치철학이 지향하는 획일적 사고와 문학 자체가 안고 있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유의 흐름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문학은 늘 다성적 카니발의 상태를 지향하고 정치는 단성적 규범의 상태를 지향하기 때문에 화합을 이루기가 어렵다.

예로부터 중국과 한국에서 과거제도가 시행되면서 글 잘 하는 사람이 정사를 맡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이런 까닭에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간 사람들은 대부분 시문을 즐겨 지었고 우리가 문학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관직에 나가 정치를 한 사람이다. 말하자면 문학의 인식적 기능과 상상적 기능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당시의 선비들은 문학인과 정치인의 역할을 공유했고, 그들 스스로도 시(詩)와 문(文)이라는 이중적인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정서적으로 표현하려는 욕구와 사회적 자아에 충실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허용된 규범의 벽을 넘어 사회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방일한 글에 대해서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이라 하여 가혹한 정치적 제재를 가하였다. 요컨대 상상적 기능이 우위를 보이는 글에 대해서는 정상의 울타리 밖으로 내모는 징벌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학과 정치의 갈등은 동서고금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

2) Karl R. Popper, 이한구 역,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민음사, 1998, 268-274쪽.

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태로 노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문학인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기발한 상상의 확대와 정치인이 요구하는 안정되고 균형있는 제도의 정착은, 어느 순간 상보적인 관계를 맺다가도 본질적으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다. 특히 감성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시의 경우 정치 현실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정치 현실은 사전에 제시되어 있는 이상적인 정치의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국어사전에는 정치에 대해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³⁾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의 봉건적 정치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 강점기의 식민적 통치 체제나 해방 후의 미군정기, 1960년까지의 자유당 정권, 1979년까지 개발 독재로 일컬어지는 유신 체제, 그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치 상황은 국민들에게 저항의 대상이 아니면 거부, 혐오, 냉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 대다수가 갖고 있는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의식은 문학 중 가장 순정한 표현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와 정치와의 관련성을 더욱 부정적으로 보게 한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한 정치 현실을 도외시킬 수는 없다.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정치적 활동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관철되고 인간의 현실적 이익 추구하고 그것의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가 정서와 상상력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정서와 상상이라는 것도 인간의 삶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인간의 삶이 가장 현실적인 양태로 폭발하는 영역이 정치 국면이기 때문에 시도 정치 현실과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파란과 격동이 자신했기 때문에 시에도 그러한 정치적 문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일제 강점기의 시인과 해방 후의 시인 중에서 정치적 격변의 시대에 시를 통해 현실에 대한 반응을 두드러지게 표현한 임화와 김수영의 작품을 검토하여 시인이 체험한 정치 현실이 작품 속에 어떻게

3) 한글2002 한컴 사전.

형상화되어 있으며 정치적 문제의 표현을 통해 시인이 추구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려 한다.

II. 입화의 경우

18세 때 보성중학을 중퇴하고 가출하여 종로 거리의 신흥 청년으로 나선 입화가 카프에 가입한 것은 19세 때인 1926년의 일이다. 그는 박영희 집에 기숙하면서 사상적 기초와 조직 운동의 방법을 학습하였고 시와 평론을 발표하며 카프의 소장파 맹원으로 성장해 갔다.⁴⁾ 1929년에 들어서면서 그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 할 수 있는 관념적 경향에서 이탈하여 현실의 사건에서 취재한 이야기가 시작 구성의 바탕이 되는 독특한 이야기 시 양식을 시도한다. 김기진이 ‘단편서사시’로 명명한 이 시편들은 서사적 내용이 정서와 의식을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야기를 펼쳐냄으로써 조금하계 구호를 앞세우는 선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식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행동의 분출을 노릴 수 있게 되었다.⁵⁾ 그러한 단편서사시 계열의 작품을 발표순으로 열거하면 『네 거리의 순이』(『조선지광』, 1929. 1), 『우리 오빠와 화로』, 『어머니』, 『봄이 오는구나』, 『병감에서 죽은 녀석』, 『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 『양말 속의 편지』, 『오늘밤 아버지는 퍼령 이불을 덮고』(『제일선』1933. 3) 등이다. 이들 시편은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연대 투쟁보다는 가족적 연대감에 바탕을 둔 투쟁 의식 고취에 비중을 두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누이, 오빠, 어머니, 아버지, 친구, 애인 등이다. 투쟁을 벌이다 희생된 인물을 등장시키고 희생의 토대 위에 새로운 투쟁이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주제는 투쟁의식 고취라는 선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가족이나 연인의 인간적 밀착감이 행간에 전달되도록 구도를 잡았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현실감을 갖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현실의 구체적 정황을 작품 속에 끌어들이는다.

4) 김윤식, 『입화 연구』, 문학사상사, 1989, 13-24쪽.

5) 이송원, <입화 시의 선동성과 낭만적 열정>, 『20세기 한국시인론』, 국학자료원, 1997, 60쪽.

일찍이 해가 1920년이었을 때 3월 우리들의 사랑하는 용감한 내 나라의 백성들이 ○○한 제국주의 ○○과 자유를 싸웠을 때 어떻게 꿈에도 못 잊을 사랑하는 동포가 ○들의 독수에 넘어졌던가를 말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평화하여야 할 녹색의 고운 도읍 수원에서 한꺼번에 사랑하는 동포 팔백 구백을 ○에 살며 ○인 놈도

오! 미운 그 놈! 그 놈들이었고

수도 경성에서 대도상에 귀여운 젊은 여자의 하얀 가슴에다 ○을 박은 놈도!

근로하는 노동자 농민을 예속과 착취에서 해방하려는 우리들의 전위 ○○ 젊은 ○○을 모든 ○○한 야수적 방법으로 ○이고 ○문(問)한 놈도

그 놈! 그 놈들이었다.

『病監에서 죽은 녀석』⁶⁾ 부분

이 시에 1920년으로 나와 있는 사건은 1919년 3·1독립운동의 착오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사건은 3·1운동 당시 경기도 수원군 제암리에서 있었던 일제의 잔혹한 양민학살사건이다. 제암리학살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1919년 4월 15일에 일어났다.

이날 오후 2시경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군 경들은 3·1만세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해서 기독교도 약 30명을 제암리교회에 모이게 하였다. 주민들이 교회당에 모이자 아리타는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게 하고 집중사격을 명령하였다. 그때 한 부인이 어린 아기를 창 밖으로 내어놓으면서 아기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일본군경은 그 아이마저 찢러 죽였다. 이같은 학살을 저지른 일제는 증거인멸을 위해 교회당에 불을 질렀으며, 아직 죽지 않은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며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모두 불에 타 죽었다. 이때 교회당 안에서 죽은 사람이 22명,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이었다. 일제는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인근의 교회건물과 민가 등 31호에 불을 질러 또다시 살상자를 내었다. 이와 같은 일제의 만행은 선교사들의 분노를 사게 하여 언더우드는 참사현장을 돌아보고 보고서를

6) <무산자>, 1929. 8. 『임화 선집 1』, 세계, 1988, 43-44쪽에서 인용. 이하 임화 시의 인용도 이 책에 의거함.

작성해 미국으로 보냈으며, 스코필드는 현장으로 달려가 그 생생한 모습을 사진에 담아 '수원에서의 잔학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에 보내어 여론화하였다. 1982년 제암리학살현장의 유적은 사적 제299호로 지정되었다.⁷⁾

그뿐 아니라 일제의 군정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雨汀面) 화수리의 민가에 방화하고 양민을 무차별 살해하였다. 4월 3일 시위군중이 화수리주재소를 불지르고, 한국인을 사살한 일본 순사 1명을 타살하자 일제는 4월 11일 새벽, 헌병과 경찰을 투입하여 민가에 불을 지르고 뛰쳐나오는 사람에게 총질을 하고 칼로 찢러 수십 명을 학살하였다. 비교적 부촌(富村)이던 마을은 이 사건으로 40여 가구 중에서 18가구만 남고 모두 불탔으며, 후에 많은 아사자(餓死者)가 생겼다.

여기에 대해 한국독립운동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목요일인 4월 15일 낮 몇 명의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와 강연이 있을 터이니 모든 남자 기독교 신자와 천도교 교인들을 모두 교회로 집합하라고 알렸다. 29명의 남자들이 교회에 가서 안에 들어 앉아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고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종이 창문 틈으로 군인들이 교회를 완전히 포위하고 불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을 때에도 일본군인들은 이미 불길에 싸인 교회 건물에 계속 불을 붙였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은 탈출을 기도했지만 칼에 찢리거나 총에 맞아 죽었다. 교회 밖에는 이같이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은 6구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남편이 교회에 불려 갔는데 총소리가 나자 놀란 두 명의 부녀자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고 달려와 군인들의 틈을 비집고 교회로 접근하려 하자 그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렸다. 19세의 젊은 부인은 칼에 찢려 숨지고 40세를 넘는 다른 한 여자는 총살당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 신자였다. 군인들은 그런 다음 온

7) 채영국, <3·1운동 전후 일제 조선군(주한일본군)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190쪽.

야후제공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137643>)

“제암리학살사건” 한국 브리태니커 온라인 (2003. 11. 10자 기사)

http://members.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9j1804a

마을에 불을 지르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다.⁸⁾

3·1운동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적인 통계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⁹⁾

만세 시위 참가자		총 2,023,098명
피살당한 사람		7,509명
부상당한 사람		15,961명
체포된 사람		46,948명
방화	민가	715호
	학교	2개소
붕괴	교회	47개소

임화는 3·1운동 당시 수원 일대에서 있었던 일제의 학살사건을 상기하며 그 사건과 병감에서 죽은 동지의 관련성을 암시하며 원통함과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위의 통계자료를 보면 임화의 시에 나오는 이야기가 전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29년 8월의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이 복자로 가려지기는 했지만 이나마 발표될 수 있었던 것은 총독부의 통제가 조금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독부는 그때그때 조선인의 동태를 파악하여 탄압의 수위를 조절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리의 순이』에서도 종로 중심부에서 투쟁하다 투옥된 청년의 모습이 암시되고 그 청년의 애인인 누이 순이와 청년의 뒤를 이어 투쟁 대열에 합류할 결심을 한 순이의 오빠가 표면에 등장할 수 있었다.

8) 정한경, 「한국의 사정」,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301쪽.

9)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88, 242쪽.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전집』 상권,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534-555쪽의 통계를 정리한 것임.

그러나 1929년 11월의 광주학생운동과 서울에서의 대규모 민중대회 계획을 구실로 삼아 그전까지 소위 문화정치 노선을 청산하고 1930년부터 강압적인 파쇼 체제로 통치방법을 변경한다.¹⁰⁾ 통치노선의 변경에 의해 카프에도 1931년과 1933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검거 선봉이 불어닥치고 결국 1935년 5월 카프는 해산되기에 이른다. 카프가 해산된 후 임화는 마산요양소에서 폐결핵을 치료하며 은둔의 나날을 보내며 문학사를 정리하고 자신의 시작품을 모아 시집 『현해탄』(동광당, 1938)을 간행하였다. 1935년 7월 27일자 <조선중앙일보> 지면에 발표되고 이 시집에 수록된 『다시 네거리에서』는 그 동안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가 시의 가락과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간판이 죽 매달렸던 낮익은 저 이 층
 지금은 신문사의 흰 기가 죽지를 늘인 너른 마당에,
 장꾼같이 웅성대며 확 불처럼 흩어지는 네 옛 친구들도
 아마 대부분은 멀리 가버렸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순이의 어린 딸이 죽어간 것처럼 쓰러져 갔을지도 모를 것이다.
 허나, 일찍이 우리가 안 몇 사람의 위대한 청년들과 같이
 진실로 용감한 영웅의 단(熱) 한 발자국이 네 위에 끊인 적이 있었는가?
 나는 이들 모든 새 세대의 얼굴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견재하라! 그대들의 쓰러린 앞길에 광영이 있으라”고
 원컨대 거리어! 그들 모두에게 전하여다오!
 잘 있거라! 고향의 거리어!
 그리고 그들 청년에게 은혜로우라.
 지금 돌아가 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 채 죽어가도
 불쌍한 도시! 종로 네거리여! 사랑하는 내 순이야!
 나는 뉘우침도 부탁도 아무것도 유언장에 적지 않으리라.

『다시 네 거리에서』 부분

10)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까치, 1978, 193-4쪽.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10쪽.

『네 거리의 순이』(1929. 1)와 이 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한때 계급운동의 불길을 당겨 젊은이들의 은밀한 집결지이자 집단 항쟁의 성소였던 종로 네 거리가 이 시에서는 “갈 곳도 모르는 무거운 발들이/고개를 숙이고 타박타박” 걷는 허망과 비애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투쟁의식을 불태우던 순이의 애인은 여원 손가락으로 감옥 벽돌담에 달력을 그리다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때 묻은 넥타이를 맨 백수의 몸으로 청년의 뒤를 이어 전선에 참가했던 순이의 오빠도 모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근로와 투쟁으로 살던 ‘행복된 청춘’은 사라지고 순이의 어린 딸이 죽어간 것처럼 옛 동지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그들의 쓰라린 앞길에 영광 있으라고 목 놓아 외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며 공허함만이 밀려들 뿐이다. 임화는 이런 파국의 국면 속에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감하는지 “내 다시 일어나지를 못한 채 죽어가도” “늪우침도 부탁도 아무것도 유언장 위에 적지 않으리라”고 끝맺고 있다. 이러한 비애의 어조는 6·25 때 전세가 역전되어 북으로 후퇴할 때 쓴 『너 어느 곳에 있느냐』, 『바람이여 전하라』 등의 시에 되살아난다. 정세의 변화가 시의 어조와 내용을 허망한 영탄과 공허한 미화로 채색하는 것이다.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과거의 동지들은 하나 둘 전향하거나 암중모색의 내면으로 침잠한다. 임화 역시 참담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 한 단서가 다음의 시에 드러나 있다.¹¹⁾

— 벗이여 나는 이즈음 자꾸만 하나의 운명이란 것을 생각하고 있다.

자고 새면
이변을 꿈꾸면서
나는 어느 날이나
무사하기를 바랬다

행복되려는 마음이
나를 여러 차례

11) 이하의 부분은 이승원, 『한국 현대시 감상론』, 집문당, 1996, 77-81쪽 참고.

죽음에서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지만
 행복도 즐거움도
 무사한 그날 그날 가운데
 찾아지지 아니할 때
 나의 생활은
 꽃 진 장미넝쿨이었다

푸른 잎을 즐기기엔
 나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마른 가지를 사랑하기엔
 더구나 마음이 앓되어

그만 이젠
 살려고 무사하려던 생각이
 믿기 어려워 한이 되어
 몸과 마음이 상할
 자리를 비워주는 운명이
 애인처럼 그림다.

『失題』 전문¹²⁾

이 시는 『문장』지 창간호(1939. 2)에 실렸는데, 작품의 말미에는 작품의 제 작일이 '昭和 13년 11월'로 밝혀져 있는데 이것은 1938년 11월에 해당한다. 첫 연은 임화의 내적 번민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깊은 음미를 요한다. 일제 강점하의 상황 속에서 무언가 이변이 일어나 일본이 망하고 삼천리강토가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지 않은 한국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변이 일어나기를 꿈꾸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무 탈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소시민들의 일반적 속성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태도가 그 시대를 살아간 다수 한

12) 시집 『讚歌』(백양당, 1947)에는 『자고 새면』으로 게재되어 수록.

국민들의 모습이자 임화 자신의 모습임을 이 시행은 담백하게 드러내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에 속한다.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이 찾아왔을 때 행복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 살아난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임화의 태도는 매우 정직하다.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회피는 진정한 삶의 길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타협이나 굴종에 이르게 한다. 그것은 노예나 시녀의 길이다. 행복을 찾는 본능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긴 했지만 그 다음 단계의 삶에서 아무런 행복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죽음보다 나은 이유도 별로 없다. 그 삭막한 생활을 시인은 ‘꽃 진 장미넝쿨’에 비유하였다.

푸른 잎을 즐기고 마른 가지를 사랑하는 것은 장년이나 노년의 기호에 속한다. 남보다 앞서가려는 열정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서른 살의 젊은 임화에게 푸른 잎이나 마른 가지는 애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래여! 사랑하는 영원이여!/세계의 모든 것과 함께 너는 영원히 젊은 우리들의 것이다”(『세월』)라고 노래한 임화, “장하게/날뛰는 것을 위하여/찬가를 부르자”(『바다의 찬가』)고 외친 그에게는 불타는 듯한 열정의 장미꽃만이 의미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열정의 삶을 얻고자 하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혁명의 전열에 몸을 던져야 했다. 그러나 임화는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음을 고통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번민으로 인해 이 시는 그의 다른 시와는 달리 기력이 쭉 빠져버린 듯한 인상을 주지만 그가 쓴 어떤 시보다도 정직한 육성을 담아내고 있다.

마지막 연은 내용이 모호해서 그 뜻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데 이것은 임화의 의식이 그만큼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반영한다. 그는 앞에서 살기 위해 무사하기를 바라자 생활이 꽃 진 장미넝쿨처럼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마지막 연에서 ‘살려고 무사하려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믿기 어려워 한이 되어”라는 어구는 그러한 부정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면 ‘살려고 무사하려던 생각’의 대치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운명’이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시련과 고통을 줄 운명을 그는 바라는 것인데, 그러한 운명이 “애인처럼 그립다”고 그는 말한다.

운명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용기로 현실의 국면을 깨뜨리고 나아

갈 때 당연히 그 행동에는 시련과 고통이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현실의 변혁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 변혁 운동의 전위에 섰던 입화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시련을 줄 운명이 그림다는 식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의해 그런 시련의 길에 오르겠다는 생각의 표명이다. 이 부분에서 입화는 자신이 혁명가가 아니라 나약한 지식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 정직한 드러냄이 너무도 가슴 떨리는 일이기에 이 부분의 말투가 이렇듯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다. 시는 이렇듯 어느 희귀한 순간에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마력을 행사한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맨 얼굴을 그대로 내보인 것이다.

이 시 이후 일제말에 이르기까지 그는 별다른 시를 쓰지 않았다. 그가 다시 시를 쓴 것은 해방 이후 혁명가의 자리로 돌아간 다음의 일이었다. 해방 공간의 걱정 속에서, 그는 자신을 나약한 지식인으로 보았던 자리에서 떨어져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린 채,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음으로써 영웅적 투쟁의 지도자로 입신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쓴 시에는 망설임의 기미 같은 것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의 얼굴이 보이지 않은 까닭이다. 그가 선택한 혁명가의 길 끝에서 결국 그는 애인처럼 그리워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상할 운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사상의 동지들에 의해 처형당하는 일이었다.

Ⅲ. 김수영의 경우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출발한 김수영의 시작 전개 과정은 매우 독특하고 독보적이다. 그와 같은 시기에 출발한 박인환, 김경린, 조향, 김중삼 등의 시편과 그의 시를 비교해 보면 모더니스트이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려 했고 새로운 시를 모색하면서 그 안에 정치적 감각과 사회 문화적 인식을 포함시키려 했던 그의 고투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¹³⁾ 그는 불리한 문학적 상황 속에서 모더

니즘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그것의 정체를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지적 모험을 벌이고 변화를 거치면서 그 나름의 독자적 시세계를 이룩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새로운 시를 쓰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속적 측면을 도외시하지 않았으며, 사회정치적 억압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애매성을 동반한 언어와 표현의 새로움을 추구하는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둘 중 하나를 결여하면 그것은 실패작이 되어 버린다. 김수영의 성공작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작품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거느리고 있다.

다음은 1955년 9월 3일에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김수영의 초기작인데 여기에도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지이프차를 타고 가는 어느 젊은사람이
 愉快한 表情으로 活潑하게 길을 건너가는 나에게
 인사를 한다
 옛날의 同窓生인가 하고 고개를 기웃거려보았으나
 그는 그사람이 아니라
 ○○부의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은 課長이며 名士이다

(중략)

여기는 좁은 서울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거리의 한모퉁이
 憂鬱 대신에 수많은 기쁨을
 흔드는 快活
 잊어버린 수많은 詩篇을 밟고 가는 길가에
 榮光의 깃들이여 店鋪여 歷史여
 바람은 먼도날처럼 날카로우건만
 어디까지 明朗한 나의 마음이나
 구두여 洋服이여 露店商이여
 印刷所여 入場券이여 負債여 女人이여

13) 이승원, 『초록의 시학을 위하여』, 청동거울, 2000, 153쪽.

그리고 女人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그네여
 돈을 버는 거리의 부인들의
 어색한 모습이어

『거리(2)』 부분¹⁴⁾

이 시에는 전후 복구재건기에 처한 한국사회의 변동 속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화폐가치가 사람과 사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익숙하지 못한, 거리의 방랑자이자 체제의 경계인인 김수영이 느끼는 열패감과 소외감이 담담하게 그려져 있다. 지금 화자는 저 옛날 임화가 활동하던 바로 그 번잡한 종로 네거리를 걷고 있다. 돈 버는 재주라고는 없는 시인의 눈에 거리로 나와 돈 버는 일에 참여하는 부인들이 보인다. 거기서 그들과 시인과의 거리가 극명하게 각인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쁜 얼굴에 눈살을 찌푸리고 독기를 품은 채 자본의 흐름을 뒤쫓고 있다. 시인 자신은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망설이며, 표면에 떠오르는 명랑하고 쾌활한 모습과는 달리 우울과 번민에 휩싸여 있다. 자본주의의 회로로 빠르게 편입되어 가는 서울 거리의 풍경을 점묘하며 “沙漠의 한 끝을 찾아가는 먼 나라의 외국사람처럼” 나아갈 방향을 잃은 갈등과 방황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 자신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도시 풍경에 뚜렷한 비판이나 저항의 자세도 보이지 못하고 그는 소시민으로 나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시의 순수성을 머리에 새기며 시를 배반하고 사는 자신의 일상적 삶을 수시로 반성한다. 이 당시에 쓴 그의 일기에는 이러한 심정이 비교적 여과 없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영터리 출판사의 덤핑 번역 일을 맡고, 삼류 출판사에서 기자 노릇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 원고료 독촉을 하고, 시간이 나면 안국동 뒷골목의 쓸쓸한 다방을 찾고,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비속한 삶을 부끄러워하는 그의 세속적 삶은, 자신이 순정하게 생각하는 시와는 사뭇 다른 차원에 속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드러낸다.¹⁵⁾

14) 『김수영 전집 1 시』, 민음사, 1981, 75-76쪽. 이하 김수영 시의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함.

자기 자신이 시와는 ‘반역된 생활’(『구름의 파수병』)을 하고 있다는 의식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눈』)에 대한 기대를 젊은 시인에게 걸기도 하고, 무서운 기색도 없이 쉬지 않고 떨어지는 폭포의 표상을 통해 “고매한 정신”과 “곧은 소리”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1956년 이후 한국의 정치상황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고 정치적 지배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술책을 짜내는 데 골몰한다. 폭력배까지 동원한 자유당의 권력 집중은 독재의 과격으로 치닫게 되며, 민심의 지지를 잃은 권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배신감과 환멸감을 느끼며 거대한 조직 사이에 끼인 나약한 소시민으로서의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1959년에 쓴 다음의 시는 거대한 현실의 힘 앞에 결국은 침묵의 죽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시인의 운명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靈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黃昏도 저 돌벽아래 雜草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高요함도 이 高요함도

15) 이승원, <김수영 시정신의 지향점>, 『20세기 한국시인론』, 국학자료원, 1997, 313쪽.

그대의 正義도 우리들의 纖細도
 行動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郊外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靈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死靈』 전문

이 시에는 ‘활자의 반짝거림’과 ‘자유를 말함’이 대등한 이미지로 제시된다. 그러나 활자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지식인으로서 그 상황을 방관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식에 도달한다. 죽음이란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懶惰와 安定을 뒤집어놓은 듯이” 떨어지는 폭포의 기상에 동경을 가졌던 김수영에게 불의와 부정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공손하게 고개숙이고 자유와 정의에 대한 속삭임을 수동적으로 듣거나 그저 고요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전혀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그대의 正義”와 “우리들의 纖細”를 대비하였지만 섬세가 아니라 섬약이며 비겁일 따름이다.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의 정황 속에서는 누구도 아무런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세상의 모든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판이니 미래의 무엇에도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도 그대는 간간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나의 영은 죽은 듯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시인 자신을 포함한 소시민들의 의식의 죽음, 의지의 죽음을 이 시는 ‘사령’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소심한 자세를 취하던 그에게 4·19는 커다란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4·19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 가부장적 정치권력을 무너뜨리게 되는 한국역사상 최초의 체험이다. 이때 그의 나이 40세이니 시민혁명 대열에 동참하지는 못했을 것이지만 그것이 주는 감격과 영광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것은 4·19 이후 그의 시의 어조가 급격히 바뀐 사실에서 반증된다. 1960년 4월 26일에 쓴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밭짓개로 하자』

는 시는 격문과 같은 구호와 선동으로 채워진 90행이 넘는 장시다. 그놈이란 당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의미한다. 그 사진은 썩은 눈의 사진이고 살인자의 사진이니 모든 관공서와 거리에서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쓰든가 불쏘시개로 쓰든가 강아지 깔개로 쓰자고 목청 높이 외치고 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탄식하던 때에서 상황이 역전하자 독설과 저주의 어법이 돌출된 셈인데 지식인의 차원에서 보자면 물러난 권력자를 모욕하기에 앞서 죽은 영처럼 숨죽이고 살았던 자신의 비겁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김수영은 더욱 뜨거운 욕성으로 4·19순국학도위령제에 부치는 노래를 짓고(『기도』) 육법전서를 넘어선 혁명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육법전서와 혁명』) 젊은 학생들의 구호에 맞추어 “미국인과 소련인은 하루바삐 나가다오”(『가다오 나가다오』)라는 외침까지 부르짖게 된다.

자유와 정의를 향한 4·19의 순정한 이념은 시민혁명을 주도한 지도세력의 저력이 분산되고 현실적 지향점이 분열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정치현실의 혼란을 노정시키고 만다. 표면적으로 돌출된 정치적 혼란이 자체의 힘으로 안정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으나 사회의 혼란에 불안감을 느낀 군인들이 “누란(累卵)의 위기에서 조국을 구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분출되었던 자유에의 욕구는 차단되고 쿠데타 주도세력인 군인들에 의해 사회가 다시 통제되는 재편성의 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정치 상황 속에서 김수영의 독설과 구호는 밑으로 가라앉고 애매모호한 언어의 유희를 통해 현실의 부정적 상황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것이 5·16 직후인 1961년 6월 3일부터 1961년 8월 25일까지 이어진 『新歸去來』 9편 연작의 제작이다. 그는 우회적 어법을 통하여 직선적 독설의 어법으로 풀지 못한 배설을 하고 마음의 균형을 취해 갔던 모양이다. 요설과 독백으로 얼룩진 난해시를 일년 정도 쓰던 김수영은 안정되어 가는 정치권력과 소시민적 타협을 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1962년 9월 26일에 쓴 『長詩(1)』이다. 이 시에 제시된 두 가지 명제는 “겨자씨같이 조그맣게 살면 돼”와 “長詩만 長詩만 안 쓰면 돼”이다. 거대한 정칙 권력 앞에 소시민의 풍자를 택한 김수영은 겨자씨같이 조그만 존재로 자처하면서 현실속에 드리워진 사회정

치적 억압의 기미를 포착하고 그속에서 살아가는 소시민의 나약성을 폭로한다. 이것은 지적인 고뇌를 통해 자신을 해부하고 고발하는 방법이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王宮 대신에 王宮의 음탕 대신에
五十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越南과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二十원을 받으러 세번씩 네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앞에 情緒로
가로놓여 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에 포로수용소의 第十四野戰病院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어스들과 스폰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어스들 옆에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폰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을 지고
머리도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있다 絶頂 위에는 서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

그러니까 이렇게 웅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회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二十원 때문에 十원 때문에 一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나 一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전문

1965년 11월 4일에 쓴 이 시는 억압적 정치상황 속에서 나약한 지식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주류에 저항하지 않고 지엽말단적인 일에 웅졸하게 분개하는 방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현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그는 자신의 그런 기질이 유구한 전통을 지녔다고 포로수용소에서의 일화까지 제시하며 자기 폭로의 어법을 취한다. 정면으로 버티지 않고 옆으로 비켜섬으로써 웅졸한 반항을 통해 살아남는 방법을 그는 택한 것이다. 정면으로 저항하면 권력의 힘에 억눌려 죽고 말지만 먼지나 풀처럼 먼저 옆으로 비켜서면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이렇게 옆으로 비켜서는 웅졸한 행동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현실속에 권력의 횡포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명의 억압이 존재한다는 것을 역으로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웅졸한 반항의 방법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월남파병에 반대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지 못하지만 붙잡혀간 소설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의 억압과 모순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자기반성의 형식을 빌어 현실을 비판하는 것”¹⁶⁾이러한

우회와 암시의 어법으로 정치권력의 횡포를 드러낸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겨자 씨같이 조그맣게 살면 돼”라고 한 그의 자조가 이룩한 지혜의 방법이다. 이 소시민적 저항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인간의 간악한 신념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단단함이며 가슴 벅찬 사랑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는 한편의 시로 표현하였던바,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일차 임기가 끝나가던 1967년 2월 15일의 일이었다.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도시의 끝에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 그 강 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 삼월을 바라보는 마른 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 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쪽에 쪽빛
 산이

사랑의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들의
 슬픔처럼 자라나고 도야지우리의 밤찌끼
 같은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
 이제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
 까지도 사랑이다

왜 이렇게 벅차게 사랑의 숲은 밀려닥치느냐
 사랑의 음식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난로 위에 끓어오르는 주전자의 물이 아슬
 아슬하게 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의 節度는
 열렬하다
 間斷도 사랑

16) 하정일, <김수영, 근대성, 민족문학>, 『실천문학』, 1998. 봄호, 199쪽.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할머니가 계신 방에서
심부름하는 놈이 있는 방까지 죽음 같은
암흑 속을 고양이의 반짝거리는 푸른 눈망울처럼
사랑이 이어져가는 밤을 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만드는 기술을 안다
눈을 떴다 감는 기술-불란서혁명의 기술
최근 우리들이 4·19에서 배운 기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소리내어 외치지 않는다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며
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暴風의 간악한
信念이며
봄베이도 뉴욕도 서울도 마찬가지다
信念보다도 더 큰
내가 묻혀 사는 사랑의 위대한 都市에 비하면
너는 개미이나

아들아 너에게 狂信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을 알 때까지 자라라
人類의 종언의 날에
너의 술을 다 마시고 난 날에
美大陸에서 石油가 고갈되는 날에
그렇게 먼 날까지 가기 전에 너의 가슴에
새겨둘 말을 너는 都市의 疲勞에서
배울거다
이 단단한 고요함을 배울거다
복사씨가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거다!
복사씨와 살구씨가
한번은 이렇게
사랑에 미쳐 날뛴 날이 올거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 같은 잘못된 시간의

그릇된 冥想이 아닐거다.

『사랑의 변주곡』 전문

이 시는 도야지우리의 밥찌끼 같은 서울의 지저분함이라든가 그 속에서 살아 가는 서민들의 슬픔, “가시밭, 넝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로 비유되는 소시민적 삶의 너저분함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포용함으로써 이러한 실제의 생활 속에 우리가 이어가야 할 사랑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작품이다. 거창한 이념이나 억지로 만들어진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진실이 있고 그 일상의 삶을 사랑으로 포용해야 하며 일상의 삶이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는 내용이다.¹⁷⁾ 그런데 시인의 뜻을 구호나 외침으로 내세우지 않았고 시적인 비유를 통해서 형상화했다. 겨자씨와 먼지와 풀의 비유는 이 시에서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의 비유로 바뀌었다. “조그만 것과 거대한 것, 고요함과 격렬함(폭풍), 부드러움과 단단함”¹⁸⁾의 이항대립 속에서 거대하고 격렬한 것을 밀어내는 조그맣고 고요한 사랑의 단단함을 노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김수영 시와는 다른 독특한 형식과 율동이 이 시의 주제를 밀고나가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김수영은 이 시에 새로운 음악을 붙여넣었다.¹⁹⁾ 이러한 음악의 힘에 의해 서민의 삶에 대한 역동적 사랑을 강렬하게 표현하였다.²⁰⁾ 김수영의 시가 압축미와 언어 경제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시는 “독특한 배어(配語)와 양장브망(enjambment, 행 걸쳐쓰기)에 의해 산문적 언술이

17) 유종호는 이 시에 대해 “우리말로 쓰여진 가장 도취적이고 환상적이며 장엄한 행복의 약속을 보여 주고 있다”고 했다.

유종호, <시의 자유와 관습의 굴레>,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255쪽.

18) 정남영, <김수영의 시와 시론>,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234쪽.

19) 이 점에 대해, 서우석, <김수영 : 리듬의 회열>,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173쪽에서 “김수영의 시는 (……) 리듬과 싸운 흔적이 있는 시들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 김인환은 이 시의 사랑에 대해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었고, 반성은 사랑으로 변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김인환, <한 정직한 인간의 성숙과정>,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219쪽.

내용과 조화를”²¹⁾ 이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1연에서 2연까지 기존 시의 행 처리 방법을 무시하는 듯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시상 전개는 의미의 역동성을 우위에 둔 다이내믹한 울동을 느끼게 한다. 평면적인 의미의 단락으로 보면,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도시의 끝에 사그러져가는 라디오의 재갈거리는 소리가 사랑처럼 들리고/그 소리가 지워지는 강이 흐르고/그 강 건너에 사랑하는 암흑이 있고/삼월을 바라보는 마른나무들이 사랑의 봉오리를 준비하고/그 봉오리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이는 저쪽에 쪽빛 산이”로 구분되는 내용을 위처럼 의미 단락의 가운데에서 행 구분을 해 놓았다. 그렇게 되자 “도시의 끝에”라는 구절은 “사랑을 발견하겠다”와 “사그러져가는” 양쪽에 걸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 소리가 지워지는” 역시 “사랑처럼 들리고”와 “강이 흐르고” 양쪽에 걸리는 듯한 인상을 전달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1연의 각 시행이 긴밀하게 의미가 연결되면서 결속된 시형태를 통해 각각의 소재 역시 결속되는 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또 1연 끝의 “산이”는 짧은 두 음절의 행으로 1연의 함축적 종결을 짓는 듯 하면서 다시 2연의 “무시한다”의 주어가 됨으로써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에서 출발하여 “서울의 등불을 무시한다”까지 이르는 한 소절의 매듭을 짓는다. 그렇게 한 소절의 매듭을 지은 다음에 “이제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까지도 사랑이다”라는 문장으로 전반부의 주제를 드러낸다. 이 주제문 역시 띄어쓰지 않기로 되어 있는 체언과 조사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행을 구분함으로써 의미의 강세와 호흡의 긴박을 고조시키는 음악적 처리를 하였다. ‘까지’에서 행을 나누자 “이제 가시밭, 덩쿨장미의 기나긴 가시가지”까지 호흡을 높이며 읽고 그 다음 행의 “까지도”를 자연히 힘을 주어 읽게 됨으로써 그러한 강세와 고조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성적 의미 지향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김수영이 창조한 음악이다.

그 음악은 4연 1행과 2행의 “아슬/아슬하게”의 구분에서도 나타나고, 아슬아슬하게 키워 놓은 긴 시행이 “열렬하다/間斷도 사랑”의 짧은 시행으로 전환될

21) 이은정, <상반된 수용의 문제>,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430쪽.

때 또 발생한다. 긴 시행의 빠르고 높은 호흡이 짧은 시행의 느리고 낮은 호흡으로 급변하면서 음률의 변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한 역동적인 음률은 “복사씨와 살구씨와 꽃감씨의 아름다운 단단함이어/고요함과 사랑이 이루어놓은 暴風의 간악한/信念이어”에서 절정에 달한다. 마지막 음률의 부딪침은 느낌표가 표기된 두 문장에서 일어나는데 그 부분이 시인의 소망을 담은 주제문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낭독하면서 이 두 부분을 읽을 때 정말로 “사랑에 미쳐” 날뛰는 기분으로 낭송하는 여의를 갖추어야 한다.

IV. 맺음말

임화와 김수영의 경우 공통적인 것은 정치적 억압의 힘이 후퇴하여 정치적 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할 수 있을 때 그 시는 사실 소개의 시, 투쟁 선동의 시가 되거나, 자신의 분노를 폭발하는 도구, 구호와 절규의 형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이다. 1929년부터 1930년까지 쓰여진 임화의 『네 거리의 순이』, 『우리 오빠와 화로』, 『병감에서 죽은 녀석』 등의 작품이 그러하고, 4·19이후 5·16 이전까지 쓰여진 김수영의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로 하자』, 『기도』, 『육법전서와 혁명』, 『가다오 나가다오』 등의 작품이 그러하다. 정치적 억압의 힘이 강해져 자아가 내면으로 후퇴할 때 오히려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억압적 현실속에서 연약한 자아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모색하게 된다. 진정한 시는 이러한 모색과 반민민의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현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나 정치 상황에 대한 일방적 비난은 시의 소재는 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시의 자리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임화가 현실에서 패배해서 자신의 내면에 칩거했을 때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드러낸 『失題』 같은 시를 쓸 수 있었으며, 김수영의 경우도 현실에서 비켜서서 소시민적 저항의 방법을 모색할 때 『사랑의 변주곡』과 같은 일상의 삶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석은 1980년대 민중시에 대해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Im Hwa(임화), Kim Soo Young(김수영), political realities, political repression, short epic poetry, "Lost Title(실제)", "A Variation of Love(사랑의 변주곡)"

참고 문헌

- 『임화 선집 1』, 세계, 1988.
- 『김수영 전집 1 시』, 민음사, 1981.
-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 김윤식, 『임화 연구』, 문학사상사, 1989.
- 김인환, <한 정직한 인간의 성숙과정>,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박은식전집』 상권,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7.
- 서우석, <김수영 : 리듬의 회열>,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88.
- 유종호, <시의 자유와 관습의 굴레>, 『김수영의 문학』, 민음사, 1983.
- 이승원, 『20세기 한국시인론』, 국학자료원, 1997.
- 이승원, 『초록의 시학을 위하여』, 청동거울, 2000.
- 이승원, 『한국 현대시 감상론』, 집문당, 1996.
- 이은정, <상반된 수용의 문제>,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 정남영, <김수영의 시와 시론>, 『김수영 다시 읽기』, 프레스21, 2000.
- 정한경, <한국의 사정>,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까치, 1978.
- 채영국, <3·1운동 전후 일제 조선군(주한일본군)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 하정일, <김수영, 근대성, 민족문학>, 『실천문학』, 1998. 봄호.

Bowra, C. M., *Poetry an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opper, Karl R., 이한구역, 『열린 사회와 그 적들』, 민음사, 1998.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